

레크레이션 選擇行動의 體系的 理解 : 計劃行動理論의 적용으로

洪 性 權

建國大學校 農業生命科學大學 園藝科學科

Understanding Recreational Choice Behavior: Application of Theory of Planned Behavior

Hong, Sung-Kwon

Dept. of Horticultural Science, Kon-Kuk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test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recreational choices behavior. Lotte World was chosen as study area, and college students were selected by nonprobability sampling for two waves of data collection. The first wave of data were collected one weeks into the spring semester: intention,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PBC) were measured. To collect the data of the second wave, the same respondents were asked their behavior, one week prior to the final examination: whether they visited the Lotte World or not.

Polychoric correlation among variables were calculated by the PRELIS because behavior was nominal variable. Then, weighted least square method was utilized to calibrate structural equation model by the LISREL version 7.2. Structural link from PBC to intention was identified. Moreover, PBC had the most significant effect on intention among three determinants: the direct effect on intention was 0.421 and the indirect effect via intention on behavior was 0.145, respectively. However, its effect on behavior was insignificant because actual control over 'visiting of Lotte World' was relatively high. A few comments were suggested on data collection, and inclusion of new variables was discussed for the sufficienc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 序論

레크레이션 行動에 영향을 미치는 先行변수들간의 관계가 아직까지 명확치 않아, 行動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론과 이론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Ajzen and Driver, 1991). 論理的 行爲理論(Theory of Reasoned Action)은 레크레이션 行動 연구 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이론으로(Fishbein and Ajzen, 1975), 이미 많은 학문분야에서도 그 실효성이 검증되었다(Young and Kent, 1985; Manstead, et al. 1983; Ajzen and Fishbein, 1980). 이 이론은 行動이 자기조절下(under volitional control)에서 이루어진다고 假定하고 개발된 이론이다.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行動이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완벽한 자기조절下에서 이루어 질 수는 없으며 자기조절의 범위를 벗어나는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형성된 의도가 行動으로 실행되는데는 제약이 따른다(Madden et al., 1992). 이런 이유로 하여, 논리적 行爲 이론은 상대적으로 行動의 자기조절이 가능한 분야의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計劃行動理論(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논리적 行爲이론에 '지각된 行動조절(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이란 새로운 결정요인(determinant)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이론의 비현실적 가정을 제거한 一般이론으로, 지각된 行動조절은 의도의 형성 뿐만 아니라 行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사항이다(Ajzen, 1985). 기존의 레크레이션 行動연구에서도 行動조절 개념은 제한요소(constraint) 또는 상황요소(situational factor)란 이름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되었지만(洪, 1997; Crawford et al., 1991; Henderson et al., 1988), 다른 결정요인들과의 관련성 與否와 정도는 이론 不在로 설명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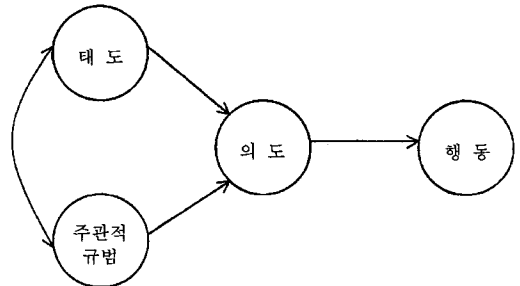
레크레이션 行動 역시 행위자의 완벽한 자기조절下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계획 行動이론의 적용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이미 小數

의 연구가 진행중이다(Ajzen and Driver, 1992; Ajzen and Driver, 1991).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논리적 行爲이론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洪, 1991; 金, 1991), 계획 行動이론을 적용한 예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行動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간의 관계 및 영향력 정도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金과 嚴, 1997). 이에 본 연구는, (a)국내의 대표적 主題公園인 롯데월드의 방문與否를 行動으로 간주하여, (b)계획 行動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정요인들간의 관계를 공변량구조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으로 확인함으로써, (c)계획 行動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며, 레크레이션 行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간의 因果關係와 그 영향력 정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理論的 背景

1. 論理的 行爲理論 (Theory of Reasoned Action)

논리적 行爲이론(이하 TRA로 칭함)에 의하면, "대부분의 行動은 행위자의 의지에 의해 통제되며, 주어진 상황하에서 행위자는 특정 行動에 대한 의도(intention)를 형성한다. 의도는 그 行動에 대한 태도(attitude)요인과 주



(그림 1) 논리적 行爲이론

- 註: 1) 태도: 특정 行動에 대해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정도
- 2) 주관적 규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특정 行動의 실천에 대한 사회적 기대
- 3) 의도: 특정 行動이 실행될 주관적 확률

관적규범(subjective norm)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형성된 의도는 이어서 나타나는 실제행동(overt behavior)에 영향을 준다”(그림 1). 모델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변수들은 태도 또는 주관적규범에 영향을 주어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다(Fishbein and Ajzen, 1975).

2. 計劃行動理論 (Theory of Planned Behavior)

(1) 原形의 계획행동이론

TRA는 행동이 자기조절下에서 실행될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개인간에는 (a)자기조절의 능력, (b)행동실행에 필요한 정보, 기술, 능력의 보유정도, (c)의지력, (d)감정이나 충동에 의한 영향력 등에 차이가 있다. 이런 內的원인 외에도 (a)시간이나 기회의 부족, (b)다른 사람들과의 의견일치와 같은 外的원인 등에 의해 행동은 자기조절下에서 실행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TRA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Ajzen(1985)은 조절능력(control)이란 새로운 개념을 추가해 原形(original)의 계획행동이론을 제시하였다(그림 2).

1) 의도와 행동간의 관계

엄격히 말해, TRA에서의 의도는 개인이 특정행동을 실행하고자 하는 노력(attempt to perform a behavior, 이하 행동노력으로 칭함)을 예측할 뿐 실제행동을 예측한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禁煙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는 그 사람이 금연하고자 하는 노력을 예측할 수 있을 뿐 실제 금연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 실제의 금연여부는 금연을 어렵게 하는 여러 변수들이 통제될 수 있다는 조건하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측정된 의도가 행동노력을 예측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의도가 측정후 바뀌었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측정된 의도가 행동노력을 잘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실제행동을 예측하지 못한다면, 행동이 자기조절下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행동과

행동노력과의 관계는 (식 1)과 같이 정의되며, TRA는 (식 1)의 실제조절능력(actual control)을 1로 간주한 특수형이다.

$$B \propto B_t \cdot C \dots\dots\dots (식 1)$$

B: 실제행동, B_t: 행동노력, C: 실제조절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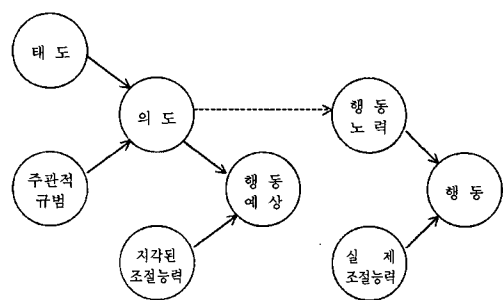
2) 의도와 행동예상간의 관계

행동예상(behavioral expectation, BE)은 ‘특정행동의 실행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도(I)와 지각된 조절능력(perceived control, b_c)의 곱으로 계산된다(식 2). TRA는 (식 2)의 지각된 조절능력을 1로 간주한 특수형이다.

$$BE \propto b_c \cdot I \dots\dots\dots (식 2)$$

3) 변수간의 상관관계

행동예상과 행동노력은 같은 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성이 높으나, 행동예상과 실제행동간의 상관성은 실제조절능력과 지각된 조절능력간의 대응성(correspondence) 정도 로 결정된다.



(그림 2) 原形의 계획행동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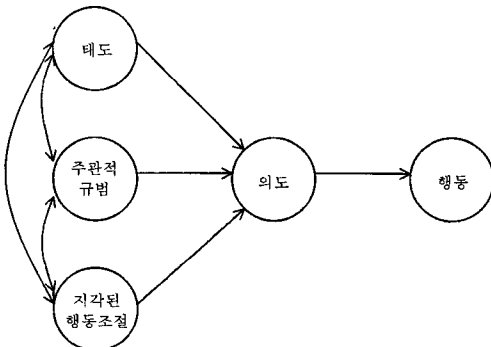
(2) 계획행동이론

原形의 계획행동이론에서는 조절능력을 ‘실제’와 ‘지각된’ 것으로 분류하였으나, Ajzen and Madden(1986)과 Schifter and Ajzen(1985)은 2가지 조절능력을 지각된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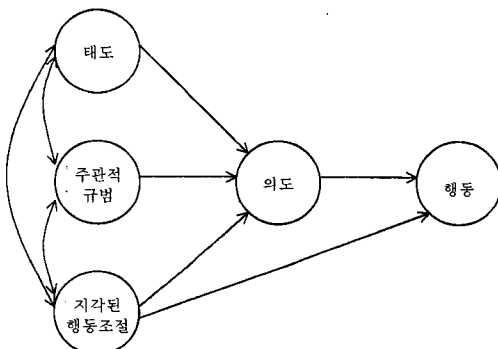
능력으로 통일하여 지각된 행동조절 (perceive behavioral control, 이하 PBC로 칭함)로 命名한 후, TRA의 새로운 결정요인으로 추가하여 일반형인 계획행동이론(이하 TPB로 칭함)을 제시하였다(그림 3, 그림 4). 그들은 PBC를 “개인이 지각하는 행동실행의 용이성 정도”로 정의하면서, 이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행위자가 알고 있는 특정행동 실행시의 어려움 (obstacle)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앞으로의 어려움도 반영한다고 가정하였다. 실제조절능력의 중요성은 명백하나, (a)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 들에 대한 실제조절능력을 행동실행 이전에 측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內的원인들을 신뢰성 높게 측정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각된 조절능력을 측정하여 실제조절능력의 대리변수로 사용한다(Ajzen and Madden, 1986). 변형된 이론의 근거는, (a)의도와 지각된 조절능력으

로 예측되는 행동예상은 행동노력과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PBC는 행동노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독립적 요인이 될 수 있으며, (b)만약 지각된 조절능력이 실제조절능력을 잘 대신하고 있다면 행동노력과 실제행동간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변형된 이론은 행동실행시 자기조절 가능성의 多少에 따라 2가지 경우로 구분된다(Madden et al, 1992; Beck and Ajzen, 1991). 자기조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행동의 경우, 행위자가 행동실행시 예상되는 어려움을 어느 정도 정확히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PBC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나 행동에는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그림 3). 자기조절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 행위자가 행동실행시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부정확하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예상되는 어려움을 고려해 의도가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가 많아 PBC는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그림 4).



(그림 3) 계획행동이론 I



(그림 4) 계획행동이론 II

III. 研究方法

1. 연구대상지 선정

건국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과학과 학생 98명을 대상으로 1996년 1년간 롯데월드, 에버랜드 및 서울랜드의 방문횟수를 12월 중에 조사한 결과, 롯데월드의 방문횟수가 가장 많아 이곳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2. 연구대상자 선정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實行性を 고려해 건국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 3, 4학년 학생들을 任意標出(purposive sampling)해 선정하였다. 1997년 봄학기 개강 첫주에 (3월 4일- 7일)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이번 학기중 롯데월드 방문에 대한 태도, 주관적규범, PBC 및 의도를 1차로 조사 수집하였다. 봄학기 15주에는 (6월

9일- 14일) 1차 자료수집시와 동일한 대상자들로부터 롯데월드의 방문與否를 2차로 수집하였다. 1차 자료수집에서는 319매, 2차에서는 298매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3. 문항의 설정 및 측정

설문에 사용할 태도, 주관적 규범, PBC 및 의도의 측정문항들은 (a)1997년 2월중 원예과학과 2, 3, 4학년 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면접 결과와, (b)TPB관련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여 결정

<표 1> 설문 문항

태도	감정적 태도	변수 명	"이번 학기중에 롯데월드에 가는 것은"	
		A-ATT1	괴로운 일이다 --- 즐거운 일이다	
		A-ATT2	지루하다 --- 자극적이다	
		A-ATT3	불쾌하다 --- 유쾌하다	
		A-ATT4	매력적이지 않다 --- 매력적이다	
		A-ATT5	바람직하지 않다 --- 바람직하다	
		A-ATT6	진부한 일이다 --- 참신한 일이다	
	수단적 태도	A-ATT7	나쁘다 --- 좋다	
		I-ATT1	쓸데없는 일이다 --- 쓸만한 일이다	
		I-ATT2	어리석다 --- 현명하다	
		I-ATT3	유익하지 않다 --- 유익하다	
		I-ATT4	의미 없다 --- 의미 있다	
		주관적 규범	NORM1	내가 이번 학기중에 롯데월드에 간다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좋지 않게 --- 좋게) 생각할 것이다.
			NORM2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번 학기중에 내가 롯데월드에 가는 것을 (반대할 것이다 --- 찬성할 것이다).
지각된 행동 조절	PBC1	이번 학기중에, 롯데월드에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 쉬운 일이다)		
	PBC2	이번 학기중에 롯데월드 가고 안 가고는 내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렇지 않다 --- 그렇다)		
	PBC3	이번 학기중에, 롯데월드에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다. (그렇지 않다 --- 그렇다)		
	PBC4	이번 학기중에, 롯데월드에 가는 것을 어렵게 할 요인(이유)들이 (많다 --- 거의 없다).		
의도	INTENT1	나는 이번 학기중에, 롯데월드에 갈 예정이다. (그렇지 않다 --- 그렇다)		
	INTENT2	이번 학기중에, 귀하는 롯데월드에 갈 확률이 어느정도라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다 --- 매우 높다)		
	INTENT3	귀하는 이번 학기중, 롯데월드에 가고자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 그렇다)		
행동	BEHAVIOR	이번 학기중에 롯데월드를 방문하셨습니다가? (미 방문: 1, 방문: 2)		

하였다(Madden et al., 1992; Ajzen and Driver, 1992; 洪, 1991; Beck and Ajzen, 1991; Ajzen and Madden, 1986; Schifter and Ajzen, 1985).

태도의 경우는 행동실행시 예상되는 (a)긍정적 또는 부정적 느낌(feeling)의 평가를 위한 감정적(affective)태도와 (b)득과失(cost and benefit)의 평가를 위한 수단적(instrumental)태도로 분리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된 이래(Ajzen, 1991), 레크레이션 분야의 연구에서도 2가지 형태의 태도가 의도에 영향을 주었으므로(金과 嚴, 1997; Ajzen and Driver, 1992; Ajzen and Driver, 1991) 본 연구에서도 태도를 2가지 형태로 분리 측정하였다.

태도는 7점 어의미분척도로 측정하였고, 주관적규범, PBC 및 의도는 7점 리커트형식 척도로 측정하였다(Ajzen and Fishbein, 1980). 행동은 롯데월드의 방문與否를 명목(nominal)수준으로 측정하였다<표 1>.

4. 타당성 및 신뢰성의 검증

3개 이상의 문항으로 구성된 태도, PBC 및 의도의 개념타당성은 요인분석으로 판단하였다. 모든 문항들의 Kaiser's MSA가 0.6이상이어서 요인분석에는 문제가 없었다. 의도 및 PBC는 고유치(eigenvalue)가 1이상인 요인이 하나이어서 개념타당성이 입증되었다. 태도는 2개 요인이 적절하였다. 2개 요인간 상관성이 높아(r=0.661) promax로 회전시켰으며, 공통변량(commumality)이 낮은 문항들을 차례로 제거한 결과 감정적태도와 수단적태도의 개념타당성이 확인되었다<표 2>.

신뢰성은 문항점수와 검사총점간 상관(correlation with total) 및 자기문항 제거신뢰성(Alpha if deleted)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적절치 않은 문항을 차례로 제거한 결과, 신뢰성 있는 문항들은 타당성 검증시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표 4>. 선정된 문항들의 문항점수와 검사총점간 상관은 모두 0.3이상

〈표 2〉 태도, 지각된 행동조절, 의도의 타당성

	변수명	F1	F2	MSA
태도	A-ATT1	0.406	0.443	0.901
	A-ATT2	-0.048	0.684	0.864
	A-ATT3	0.005	0.899	0.873
	A-ATT4	0.123	0.542	0.898
	A-ATT7	0.391	0.463	0.912
	I-ATT1	0.708	0.085	0.921
	I-ATT2	0.802	-0.066	0.921
	I-ATT3	0.683	0.119	0.920
	I-ATT4	0.602	0.058	0.939
	설명력	25.65%	22.33%	
PBC	PBC1	0.809		0.622
	PBC2	0.372		0.655
	PBC3	0.529		0.675
	PBC4	0.719		0.631
의도	INTENT1	0.835		0.739
	INTENT2	0.805		0.766
	INTENT3	0.866		0.716

주) PBC: 지각된 행동조절

〈표 3〉 태도의 신뢰성

	변수명	문항점수와 검사총점간 상관	자기문항 제거시 신뢰성	분리시 신뢰성	통합시 신뢰성
감정적 태도	A-ATT1	0.671	0.818	0.851	0.882
	A-ATT2	0.581	0.841		
	A-ATT3	0.780	0.788		
	A-ATT4	0.604	0.836		
	A-ATT7	0.679	0.816		
수단적 태도	I-ATT1	0.642	0.780	0.823	
	I-ATT2	0.668	0.768		
	I-ATT3	0.699	0.753		
	I-ATT4	0.581	0.807		

〈표 4〉 주관적규범, 지각된 행동조절, 의도의 신뢰성

	변수명	문항점수와 검사총점간 상관	자기문항 제거시 신뢰성	신뢰성
주관적 규범	NORM1	0.548	-	0.706
	NORM2	0.548	-	
PBC	PBC1	0.562	0.607	0.711
	PBC2	0.393	0.709	
	PBC3	0.532	0.626	
	PBC4	0.506	0.643	
의도	INTENT1	0.758	0.822	0.874
	INTENT2	0.739	0.839	
	INTENT3	0.776	0.805	

이며, Cronbach의 값은 모두 0.7이상이어서 양호하였다(이, 1993). 그러나, 태도의 경우, 기존 레크레이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감정적 태도와 수단적태도 각각의 신뢰성은 높았지만 통합된 상태의 신뢰성보다 낮았다.

5. 분석방법

회귀분석은 '예측'과 '설명'에 사용될 수 있으며, 사회과학에서 사용해 온 전통적 용도는 '예측'이다. 왜냐하면, 회귀계수는 변수간의 직접효과(direct effect)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간접효과(indirect effect)와 제삼변수효과(spurious effect)를 알 수 없어, 회귀분석은 이론의 내용적 설명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회귀분석의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된 방법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과 공변량구조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이다(Hair et al., 1995; Cohen and Cohen, 1983). TPB관련 기존연구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 방법은 (a)효과 검증을 위한 변수를 모델에 별도로 추가하기 때문에 모든 변수의 영향력 정도를 동시(simultaneous)검증하기 어렵고, (b)태도, 주관적규범 및 PBC간에는 상관성이 존재하지만(Ajzen and Madden, 1986), 이 방법 역시 회귀분석이어서 직접효과만이 계산될 뿐 간접효과는 정산할 수 없다.

공변량구조분석은 회귀분석에서 死藏되었던 간접효과뿐만 아니라 제삼변수효과를 고려해 모델내 변수들의 유의성을 동시검증할 수 있는 분석법으로 이론검증과 같은 '설명'에 적당한 분석법이다. 공변량구조분석은 측정모델(measurement model)과 이론구조모델(structural model)로 구성된다. 측정모델은 내재(endogenous)변수 또는 외재(exogenous)변수들이 어떤 지시(indicator)변수들로 측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연결관계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동일하며, 이론구조모델은 내재 또는 외재변수들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경로분석(path analy-

sis)과 유사하다. 따라서, 공변량구조분석은 확인적 요인분석과 경로분석이 결합된 형태로, 만약 내재 또는 외재변수들이 모두 1개의 지시변수들로만 측정되면 공변량구조모형의 특수형인 측정변수모델(measured variable model)이 된다(이, 1990). 공변량구조분석은 국내 레크레이션 연구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박의 4인, 1996; 박, 1995), TPB관련 연구에서는 Madden et al.(1992)과 Ajzen and Madden(1986)이 분석법의 일부로만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검증에 적합한 공변량구조분석을 사용하였으며, LISREL Version 7.2로 모델을 정산하였다(Jöreskog and Sörbom, 1989). 공변량구조분석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자료형태는 Pearson's correlation이며 최우추정법으로 모델을 정산한다. 그러나, 일부 또는 전체 변수가 명목 또는 서열수준으로 측정되었을 경우 Pearson's r 형태의 자료를 최우추정법으로 정산하면, 변수의 정규분포가정이 크게 위배되기 때문에 정산된 母數추정치 크기는 왜곡되며 χ^2 검증과 표준오차가 틀리게 된다. 이것은 LISREL 誤用的 가장 보편적 형태이다. 이런 경우에는 polychoric correlation을 사용해 가중최소자승법(weighted least square)으로 정산해야 한다(Jöreskog and Sörbom, 1989). 본 연구는 행동을 二項으로 측정하였으므로, PRELIS로 변수간 polychoric correlation을 계산한 후 가중최소자승법으로 모델을 정산하였다(Jöreskog and Sörbom, 1988). PRELIS는 결측치가 제외되므로 자료 2개가 누락되어 분석에 사용된 표본크기는 296이다.

IV. 結果

측정모델의 외재변수로는 감정적태도, 수단적태도, 주관적규범과 PBC를, 이론모델의 내재변수로는 의도와 행동을 설정한 후, (그림 3)과 (그림 4)와 같은 2가지 형태의 계획행동이론을 각각 공변량구조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지시변수는 결정요인별 문항들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나, 태도는 몇몇 레크레이션 연구에서 분리가능성을 제시하였으므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평균값을 사용하지 않고 문항들의 실제값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2가지 형태의 계획행동이론에서 감정적태도와 수단적태도간 상관성은 각각 0.818과 0.816으로 지나치게 높았으며(표 5), 이론모델의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와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는 낮았다(표 6). 공변량구조분석은 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변수간 상관성이 0.8이상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에는 1개의 변수를 제거하거나 변수간 因果關係를 변경시켜야 한다(Hair et al., 1995; 이, 1990).

〈표 5〉 외재변수간의 상관성
(계획행동이론 I / 계획행동이론 II)

	A-ATT	I-ATT	주관적규범	PBC
A-ATT	1.000/1.000			
I-ATT	0.816/0.818	1.000/1.000		
주관적규범	0.460/0.460	0.496/0.496	1.000/1.000	
PBC	0.275/0.263	0.258/0.250	0.415/0.409	1.000/1.000

- 주: 1) A-ATT: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한 감정적태도
- 2) I-ATT: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한 수단적태도
- 3) 주관적규범: (NORM1+NORM2)/2
- 4) PBC: (PBC1+PBC2+PBC3+PBC4)/4

〈표 6〉 이론모델의 다중상관치와 결정계수

형 태	다중상관치		결정계수
	의도	행동	
계획행동이론 I	0.310	0.103	0.310
계획행동이론 II	0.190	0.089	0.212

주) 의도: (INTENT1+INTENT2+INTENT3)/3

감정적태도와 수단적태도간 높은 상관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태도요인을 하나로 통합한 후 재분석하였다. Ajzen(1992)의 연구에서도 태도를 분리한 경우와 통합한 경우의 다중상관성(multiple correlation)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할 경우의 신뢰

성은 분리하였을 때보다 높아 태도를 통합해 분석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태도를 통합할 경우의 신뢰성이 분리하였을 때보다 높았다(표 3). 이에 따라, 감정적태도 문항(5개)과 수단적태도 문항(4개)의 총 평균값을 태도의 지시변수로 하여 이론을 재검증하였다. 모든 변수들의 지시변수가 1개씩이어서 이 경우는 측정변수모델이 되었다.

1. 계획행동이론 I

이론모델의 특징수 매트릭스는 <표 7>과 같이 설정하였고, 측정모델의 람다엑스매트릭스(lambda-x matrix)와 람다와이매트릭스(lambda-y matrix)는 identity matrix로, 세타델타매트릭스(theta-delta matrix)와 세타엡실론매트릭스(theta-epsilon matrix)는 zero matrix로 설정하여 모델을 정산하였다(그림 5). 모델의 전체적 적합도(overall model fit)를 카이사승치(likelihood-ratio χ^2), 기초부합치(goodness of fit index), 조정부합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원소간 평균차이(root mean square residual), 표준부합치(normed fit index)로 판단한 결과(Hair et al., 1995; 이, 1990) 모든 기준이 만족되어, 계획행동이론 I은 변수들간의因果관계가 적절히 설정된 모델임이 밝혀졌다(표 8).

(그림 5) 보다 더 간명한(parsimonious) 모델의 존재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고정지수, 표준차이(normalized residual), 추가지수(modification index), 다중상관자승치와 결정계수와 같은 세부적 지수들을 검토하였다. 고정지수는 t-value와 동일한 개념으로써, 값이 2이상이면 그 변수의 유의성은 $\alpha=0.05$ 수준에서 인정된다(Jöreskog and Sörbom, 1989). 분석결과, 주관적규범이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모든 변수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표 9). 표준차이는 값이 2.58범위를 벗어나면 $\alpha=0.05$ 유의수준에서 변수간 관계 설정이 잘못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는 변수간의 표준차이가 모두 기준 안에 포함되어, 변수간의 관계가 잘못 설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10). 추가지수는 모델에 미지수를 하나 추가한다면 모델의 부합도(χ^2)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값이 3.84를 넘으면 변수화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두 값이 범위 내이어서 기준을 만족하였다(표 11). 의도의 다중상관치는 0.465로 나타나 3개의 외재변수에 의해 46.5%가 설명되므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동의 경우는 0.120으로 낮았는데 이는 행동이 의도 하나의 변수로만 설명되기 때문이다. 결정계수는 0.465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의도와 행동은 태도, 주관적규범 및 PBC에 의해 46.5%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 적합도와 세부적 지수들을 검토한 결과, 계획행동이론 I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를 적절히 설명하는 모델로 밝혀졌다. 특히, PBC가 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421로써 태도나 주관적규범보다도 훨씬 크며, 의도를 통해 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0.145로써 다른 변수들보다 높았다(표 9). 단, 주관적규범의 경우, 유의성이 낮아 모델에서 생략할 수는 있지만, 이(1990)가 밝히고 있듯이 “고정지수의 크기가 2보다 작아도 그 특징수를 미지수로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 그 미지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이론개발의 목적상 보다 신중한 태도”이므로 모델에 포함시켰다. 실제로 Ajzen(1991)은 5년간 발표된 16편의 계획행동이론 관련 연구를 종합분석한 결과, 태도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유의성이 있었지만 주관적규범은 연구의 절반에서 유의성이 없었다. 이에 따라, 그는 행동의 종류에 따라 주관적규범의 영향력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롯데월드의 방문’을 행동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주관적규범, 즉, ‘특정행동의 실천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자로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하였다.

〈표 7〉 이론모델의 특징수 매트릭스

감마매트릭스(gamma matrix)				베타매트릭스(beta matrix)		
으로부터:	ξ_1	ξ_2	ξ_3	으로부터:	η_1	η_2
η_1	γ_{11}	γ_{12}	γ_{13}	η_1	0	0
η_2	0	0	0	η_2	β_{21}	0

싸이매트릭스(psi matrix)			파이매트릭스(phi matrix)			
으로부터:	ξ_1	ξ_2	으로부터:	ξ_1	ξ_2	ξ_3
ξ_1	ψ_{11}	0	ξ_1	ϕ_{11}	ϕ_{12}	ϕ_{13}
ξ_2	0	ψ_{22}	ξ_2	ϕ_{21}	ϕ_{22}	ϕ_{23}
			ξ_3	ϕ_{31}	ϕ_{32}	ϕ_{33}

〈표 8〉 모델의 전체적 적합도

지수	χ^2 유의성	GFI	AGFI	RMR	NFI
계산치	0.783	0.999	0.994	0.023	0.995
기준	0.05이상	0.9이상	0.9이상	0.05이하	0.9이상

주) χ^2 : 카이자승치, GFI: 기초부합치, AGFI: 조정부합치, RMR: 원소간 평균차이, NFI: 표준부합치

〈표 9〉 정산된 계수 및 고정지수

감마매트릭스			
	태도	주관적규범	PBC
의도	0.329(2.95)	0.139(1.00)	0.421(3.70)
행동	0.114(2.48)*	0.048(0.98)*	0.145(3.15)*

베타매트릭스		싸이매트릭스	
	의도	행동	
의도	0	0	
행동	0.345(4.57)	0	

파이매트릭스			
	태도	주관적규범	PBC
태도	1.000(12.15)	0.480(8.98)	0.257(3.77)
주관적규범	0.480(8.98)	1.000(12.15)	0.418(5.88)
PBC	0.257(3.77)	0.418(5.88)	1.000(12.15)

주) 1) 괄호안 숫자는 고정지수임
2) *는 간접효과로, 감마매트릭스에는 포함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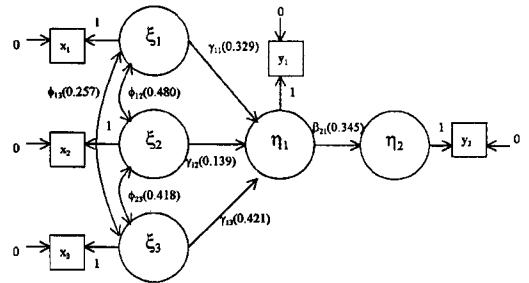
〈표 10〉 표준차이

	의도	행동	태도	주관적규범	PBC
의도	0.000				
행동	2.149	0.000			
태도	0.338	-1.123	0.000		
주관적규범	0.131	-0.164	0.078	0.000	
PBC	-0.819	0.306	0.027	-0.066	0.000

〈표 11〉 추가지수

감마매트릭스			
	태도	주관적규범	PBC
의도	-	-	-
행동	1.074	0.205	0.099

베타매트릭스		싸이매트릭스	
	의도	행동	
의도	-	0.351	
행동	-	-	



(그림 5) 계획행동이론 I의 인과모형

주) 1) ξ_1 : 태도, ξ_2 : 주관적규범, ξ_3 : 지각된 행동조절
2) η_1 : 의도, η_2 : 행동
3) x_1, x_2, x_3 : 내재변수의 지시변수
4) y_1, y_2 : 외재변수의 지시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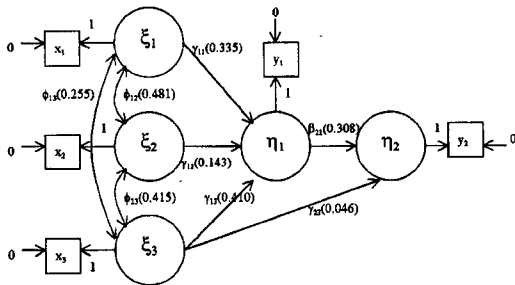
2. 계획행동이론 II

감마매트릭스는 〈표 12〉와 같이 설정하였으며, 나머지 특징수 매트릭스들은 계획행동이론 I과 동일하게 설정해 모델을 정산하였다(그림 6). 계획행동이론 II는 계획행동이론 I에서 PBC와 행동간의 관계가 미지수로 설정된 수정 모델이기 때문에, 계획행동이론 I에 비해 카이자승값이 큰 값으로 정산되어야 적절한 모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카이자승차이검증(χ^2 difference test)을 실시한 결과, “작은 모델에 비해 큰 모델을 택할 만한 부합도의 증가는 없다”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아($p > 0.5$) 계획행동이론 II와 같은 인과관계는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PBC와 행동간의 직접효과는 적었으며($\gamma_{23} = 0.046$) 고정지수도 0.315로 매우 낮았다. 계획행동이론 I의 표준

차이와 추가지수에서 보듯이 <표 10, 표 11>, 계획행동이론 I은 미지수의 추가가 필요 없는 모델이어서 이 검증의 신뢰성을 뒷받침하였다.

<표 12> 감마매트릭스

으로부터:	ξ_1	ξ_2	ξ_3
η_1	γ_{11}	γ_{12}	γ_{13}
η_2	0	0	γ_{23}



(그림 6) 계획행동이론 II의 인과모형

V. 結論 및 考察

본 연구는 레크레이션 행동연구에 계획행동이론을 도입하여, 행동, 의도, 태도, 주관적규범 및 지각된 행동조절간의 因果關係와 영향력 정도를 공변량구조분석으로 검증하였다. 건국대학교 학생들을 연구대상자로 하였으며, 14주 동안 이들의 롯데월드 방문與否를 행동으로 간주하였다. 행동은 명목수준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Pearson's r 형태의 자료로 공변량구조분석하면 결과가 심히 왜곡되므로, PRELIS로 변수간 polychoric correlation을 계산한 후 LISREL Version 7.2를 사용해 가중최소사승법으로 모델을 정산하였다.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태도요인을 감정적태도와 수단적태도로 분리해 계획행동이론을 검증한 결과, 2가지 형태의 태도간 상관성은 지나치게 높았다. 이는 태도요인들간 다중공선성이 심한 것을 의미하므로 태도요인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Ajzen(1992)의 연구에서도, 태도요인을 2개

로 분리한 경우와 통합한 경우로 나누어 각각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회귀모델의 다중상관성은 차이가 거의 없어 설명력은 비슷하였다. 그러나, 감정적태도와 수단적태도는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두가지 형태의 태도를 설문문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지각된 행동조절의 영향력이 확인되어 레크레이션 행동에서도 계획행동이론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지각된 행동조절은 의도에 영향을 주었으나 행동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1) 지각된 행동조절이 의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모델의 경우(그림 5)

지각된 행동조절이 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 모두 태도와 주관적규범보다 훨씬 컸다. 이 모델의 전체적 적합도는 카이사승치, 기초부합치, 조정부합치, 원소간 평균차이, 표준부합치로 판단하였으며, 세부적 지수로는 고정지수, 표준차이, 추가지수를 사용한 결과 모든 기준을 만족하였다. 이 결과는 지각된 행동조절이 레크레이션 행동연구시 중요한 결정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지각된 행동조절의 중요성이 간과되었음을 뜻한다.

(2) 지각된 행동조절이 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델의 경우(그림 6)

지각된 행동조절이 의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이 모델간의 카이사승차이검증 결과, 이 모델은 적절치 않았다. 본 연구는 자기조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롯데월드 방문을 행동으로 간주하였으므로 이같은 결론이 유도되었다.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을 타당한 연구방법으로 검증하였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추가 고려되어야 한다.

1. 본 연구는 실험성을 고려해 대학생들 임의표출하여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이론 검증에서는 확률표출의 필요성이 감소되지만, 추후 반복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을 확률표출해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의도의 다중상관치는 0.465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행동은 0.120로 낮았다. 이런 현상은 다음 3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1) 의도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추가될 수 있다. Ajzen and Fishbein(1980)이 합리적 행위이론에 다른 변수가 추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 이래 이 이론은 계획행동이론으로 변형되었듯이, 계획행동이론 역시 다른 변수들이 추가될 수 있으며 그런 시도가 이미 진행 중이다. Ajzen and Driver(1992)는 관여(involverment)정도를, Beck and Ajzen(1991)은 과거 행동(past behavior)을 변수화하여 계획행동이론의 설명력을 증가시키려 하였다. 비록 이들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했던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은 입증되지 않았으나 영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관여정도와 과거행동을 종합한 개념인 충誠度(loyalty)는 계획행동이론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변수로 판단된다. 레크레이션 선택행동의 연구시 충誠度의 중요성은 국내 주제공원 선택행동에서도 일부 확인되었다(洪, 1997).

(2) 1차 자료수집시 의도를 측정 한 후 14주 후에 실제행동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1차 자료수집시에 측정 한 의도와 실제행동시의 의도간에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의도의 측정과 행동실행간에 시간적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의도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증가할 것이다.

(3) 행동을 롯데월드의 방문 또는 미 방문으로 구분해 명목수준으로 측정 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23%만이 롯데월드를 방문하였다. 행동을 간격수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행동의 다중상관치가 향상될 것이다.

引用文獻

1. 金星一 (1991), "自然休養地 內的 環境汚染行動에 對한 理解: 論理的 行爲理論의 利用으로", [韓國林學會誌], 80(1):20-31.
2. 金承賢, 嚴瑞浩 (1997), "여름휴가활동 선택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하여", [韓國造景學會誌], 25(1):135-142.
3. 박승범, 김승환, 남정철, 강영조, 양위주 (1996), "利用者の 레크리에이션 利用滿足에 基礎한 都市林의 開

發指標 設定에 관한 研究", [韓國造景學會誌], 23(4):50-60.

4. 박찬용 (1995), "이용자 만족도에 준거한 국립공원 관리의 지표설정 에 관한 연구", [韓國造景學會誌], 23(1):39-50.
5. 이순목 (1990), [공변량구조분석], 星苑社.
6. 이종구 (1993), [실험 및 조사자료 분석을 위한 SAS의 이해와 활용], 星苑社.
7. 洪性權 (1997), "首都圈內 주요 主題公園 選擇에 관한 實證的 研究", [韓國觀光學會誌], 21(1):85-101.
8. 洪性權 (1991), "都市公園 利用者들의 目的地 選定에 관한 研究", [韓國造景學會誌], 19(3):128-143.
9. Ajzen, Icek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179-211.
10. Ajzen, Icek (1985), "From Intentions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J. Kuhl and J. Beckmann(Eds.), *Action-Control from Cognition to Behavior*, pp.11-39, Heidelberg: Springer.
11. Ajzen, Icek and Driver, B. L. (1992),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Leisure Choi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4(3):207-224.
12. Ajzen, Icek and Driver, B. L. (1991), "Prediction of Leisure Participation from Behavioral, Normative, and Control Beliefs: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Leisure Sciences*, 13(3):185-204.
13. Ajzen, I and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4. Ajzen, Icek and Madden, Thomas J. (1986), "Prediction of Goal-Directed Behavior: Attitudes, Intention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5):453-474.
15. Beck, Lisa and Ajzen, Icek (1991), "Predicting Dishonest Actions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5:285-301.
16. Cohen, J. and Cohen, P. (1983), *Applied Multiple Regression 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7. Crawford, Duane W., Jackson, Edgar L. and Godbey, Geoffrey (1991), "A Hierarchic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3(4):309-320.
18. Fishbein, Martin and Ajzen, Icek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19. Hair, J. F., Jr., Anderson, R. E., Tatham, R. L., and Black, W. C. (1995), *Multivariate Data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20. Henderson, Karla A., Stalnaker, Deborah and Taylor, Glenda (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Barriers to Recreation and Gender-Role

- Personality Traits for Wome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0(1):69-80.
21. Jöreskog, Karl G. and Sörbom, Dag (1989), LISREL 7: A Guide to Program and Applications, Chicago, IL: SPSS Inc.
 22. Jöreskog, Karl G. and Sörbom, Dag (1988), PRELIS: A Program for Multivariate Data Screening and Data Summarization, Mooresville, IN: Scientific Software.
 23. Madden, Thomas J., Ellen, Pamela Scholder and Ajzen, Icek (1992), "A Comparis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1):3-9.
 24. Manstead, A. S. R., Proffitt, C., and Smart, J. L. (1983), "Predicting and Understanding Mothers' Infant-Feeding Intentions and Behavior: Testing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657-671.
 25. Schifter, Deborah E. and Ajzen, Icek (1985), "Intention, Perceived Control, and Weight Loss: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3):843-851.
 26. Young, A. Robert and Kent, Anne T. (1985), "Using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Recreation Behavior",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7(2):90-106.